

「공교육정상화법」

○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선행교육 판단 기준은 ?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하는 것을 선행교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루어 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선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과정 재구성권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오해와 진실

학부모: 공교육정상화법은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즉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교육과정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유발행위(시험 등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교사: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답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행학습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 성폭력이란?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다.

2 성폭력은 발생장소



3 자주 발생하는 또래성폭력 행위는?

- 가.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을 카톡, 밴드로 보냄
 - 나.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 언급
 - 다. 여학생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친구들에게 돌림
 - 라.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짐
- ☞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 범죄이며, 처벌 대상임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지도하여야 합니다.

4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 가. 자녀들이 무엇이나 물어볼 수 있도록 나무라지 마시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 나.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 다. 아이들이 평소에 무심히 하는 행동이나 말도 유심히 봅니다.
- 라. 부모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 마.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 줍니다.
- 바. 어른이 되면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 사. 성(性)적인 것은 더럽거나 속되며 죄스러운 것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5 성폭력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가.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 나. 성폭력을 하는 사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친절하고 예의바른 사람이 많습니다.
- 다. 외딴 골목을 혼자 걸어가는 것을 피합니다.
- 라. 집안에 있을 때는 항상 문을 잠그고 낯선 사람은 절대 집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 마. 호신술이나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는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 바.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때, 싫은 느낌이 있는 경우 단호히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 사.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경우를 경계합니다.
- 아. 위급한 상황일 경우 소리를 지르는 등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기나 가재도구로 창문을 깨뜨려 외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자. 성폭행 기미를 빨리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성폭력 피해아동 대처는 이렇게

- 가. 아이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 나. 가해자의 키, 인상, 몸의 생김새, 말 행동의 특성을 기억하거나 기록해둡니다.
- 다. 몸을 씻지 않고, 팬티, 런닝 등 속옷을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 라. 법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을 위해서 원스톱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마. 아이가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면 막지 말고, 잘 듣고 공감해 줍니다.
- 바. 가해자, 피해 공간 등 피해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피합니다.
- 사. 사건처리 과정에서 아이를 관련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 아. 아이에게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말고 가능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 갈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자. 치료와 검사, 증거 채취를 위해서 몸을 씻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간다.
(48시간이내, 응급피임약은 72시간 안에 사용)

7 성폭력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가. 여성 긴급 전화 국번없이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
- 나.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성폭력 전담센터) T.063-278-0117
- 다. 가정폭력·학교폭력·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흡연, 과연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정부는 2015년도부터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 초, 중, 고 11,837개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흡연예방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가 흡연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가정마다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우리 집’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간접 흡연과 3차 흡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참보건연구회

2.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법

- 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연하는 것입니다(특히, 임산부, 수유하는 여성).
- 나. 부모가 흡연하는 가정일수록 자녀의 흡연율이 높습니다. 어른의 흡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흡연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고 부모가 외출 시 흡연행동을 모방하게 됩니다.
- 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집안에서는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피우세요.
- 라. 차안에서 어린이가 같이 타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 마.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고 양치질을 한 다음 아이와 접촉 하세요.
- 바. 아기를 안거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 학교(운동장 포함)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교내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1. 학교폭력에

가. 학교폭력의 유형-신체폭행, 언어폭력, 왕따,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등

나. 학교폭력의 기준-피해자의 판단

-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제전학을 제외하고 출석정지, 특별교육, 봉사활동, 격리 등은 선조치 후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다.
- 격리 이상의 징계 시 반드시 학부모 동행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 강화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 무제한 출석정지 (결석일 수가 출석할 일수의 1/3초과 시 유급됨)
- 강제전학 조치(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명령)
- 부모동행 특별교육이수 의무화
- 사법조치강화(보복폭력, 집단폭력은 형사처벌을 원칙)
- 징계사항 학생부에 기재 보관

라. 학교폭력 대응 요령(누군가가 학교폭력적 행동을 하려고 할 때)지도

- 1차: 강력하고 확실하게 거부 의사 표시(NO!, 하지마등)
- 2차: 거부함에도 계속하려고 하면 신고하겠다고 통보
- 3차: 신고하겠다고 통보함에도 계속하면 곧바로 담임, 학생부, 117에 신고

마. 학교폭력 신고: 종합신고센터 117, 228-8112(효자동파출소), 도교육청: 080-321-1318,

- 학생 고충상담전화:1588-7179, 청소년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88
- 학교: 전화 227-0263(인성인권안전부실, 3층), 학교홈페이지- <http://www.seojeonju.ms.kr>,
- 학교폭력담당(김조은) 010-5659-6706

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성폭력 신고의무자(교직원,학원강사) 신고 : 미 신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577-1391, 129, 112

2. 교통안전사고 예방

가. 신호등 지키기, 무단횡단 금지 지도

나. 무면허로 자종차 운전을 한다든지 오토바이 운전 금지

(혹시 가족이나 어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뒤에 타게 될 때에는 꼭 안전 헬멧을 쓰고 타야함)

다. 하천 범람 시 자전거다리 또는 징검다리를 이용하여 등하교 금지

3. 교내 흡연금지(금연)

- 1차 적발(학부모에 통보 및 소환 상담), 2차 적발(교내봉사 이상), 3차 적발(출석정지)

4.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 학급담임 책임하에 아침에 수거(학생 필요시 사용 허가)
- 학부모님들이 학생에게 연락이 필요한 때에는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연락 권장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 6명 선출(신청자와 필요한 인원이 동일한 경우 무투표로 위촉됨)

★ 학생들의 인격과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도할 계획이며 더불어 교사들의 인격과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

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관련 조항 및 구분

조항		권리
총칙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행복추구권 등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습권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학습권, 자기결정권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알권리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신체의 자유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안전권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휴식권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정보자기결정권, 알권리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제17조(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에 참여할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복지권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환경권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급식권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건강권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적법절차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상담신청 등

2. 교권의 개념

가. 교원의 권한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권 및 징계권 등

나. 교원의 권리

1) 전문직 종사자의 권리로서 교권

-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 받음
- 신분 보장권, 쟁송 제기권(소청, 재심),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활동권

2) 인간으로서의 교권

- 교사는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받지 않아야 함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노동권 등

3. 교권침해의 유형과 실태

가. 교권침해 유형 및 대응

구 분	교권침해 유형	교권침해 대응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현장에서 분리하고 필요하면 수업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교사 보호 조치 - 진단서, 증인 등 증거자료 확보 ○ 목격자, 가해자, 피해자 진술서 작성 ○ 학교장에게 보고 ○ 사전 현장조사 및 사안 관련자 면담 ○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교원에 대한 폭행	
	교사 성희롱	
	수업 진행 방해, 지시 불이행	
	재물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탈피 및 동료 교사에게 도움 요청하거나 112 또는 119에 신고 ○ 6하 원칙에 의거 사고 경위서 및 일지작성 ○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진단서 등 확보 ○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학교장은 긴급 상황 시 경찰서에 신고 조치 ○ 심각한 피해 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경찰 고소
	교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관계자 동료교사	교원에 대한 폭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 고충심사 청구서 제출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 기관의 장(교육감)에게 통보 → 기관의 장(교육감)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보냄(결정서)
	교원에 대한 폭행	
	교원에 대한 협박	

나. 교권침해 현황 실태 분석 결과

- 교권침해 유형 중 폭언·욕설 건이 많아 사전예방을 위한 바른 언어사용 교육과 침해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
-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권교육 및 예절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의 법률지원 및 상담으로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4.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에 따라 권고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상담·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지역교육청 Wee센터 또는 인근지역 Wee센터에 의뢰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실시
 - 교권침해 수준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 등 실시
- 학생지도방법, 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반영
 -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학교의 규율을 바로 세워 나가도록 함
 -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 학생지도 및 징계 방법·절차·양정 등을 학부모 및 학생 등에게 적극 안내
-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의 징계를 권고할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선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양정 의결
-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선도·고발 조치
 - 교권침해 사안에 따라 사과 또는 고발 등 조치
 -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도교육청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활용

가.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연구결과 나타난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영향과 농축수산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도 상당수
 - ※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 상향에 대한 의견('17.9월, 한국행정연구원)
 - △ 찬성(국민 45.1%, 공무원 43.2%) △ 반대(국민 52.3%, 공무원 55.4%)
 - △ 상한액 상향시 적정금액 : 국민(52.0%), 공무원(59.7%), 영향업종(54.8%) 모두 10만원이 다수
 - ※ 가액범위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 찬성 63.3%, 반대 27.5%('17.12.1, CBS)
 - 농수산물의 범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을 포함
 -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 ※ 농수산물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하여 가공한 제품
- <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예시) >

구 분	품 목
농수산물 (단순염장건조, 절단포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 김 등 • 한우, 돼지고기, 오리·닭고기, 사골 등 • 과일, 꽃감, 수삼, 녹차, 꿀, 화환 등
농수산물 가공품 (50%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 등 • 고춧가루, 곡물·버섯 분말 등 • 참기름, 볶음고추장, 과일잼, 흑마늘, 홍삼 등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액범위를 하향
- 다만, 예외적으로 법 시행 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환농가를 배려하여 현행 가액범위 유지
 - ※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5만) + 화환(5만)', 또는 '화환(10만원)' 제공 가능

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구 분		기 준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 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 ~ 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 ~ 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 ~ 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 강의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보완 신고기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 년	신규채용 시

- 1) PC 사용시간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자녀와 협의합니다. 하루에 1시간, 혹은 일주일 중에 월, 수, 금, 일요일 등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2) 부모님도 컴퓨터에 대해 알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님이 잘 아는데 대해서는 자녀들도 임의대로 행동하기 힘듭니다.
- 3)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둡니다. 거실이나 침실과 분리된 공부방 등이 좋습니다.
- 4) 자녀의 학습을 돕는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을 격려합니다. e-스쿨(사이버 가정학습)과 같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찾아보시고 지도 부탁드립니다.
- 5) 여가시간에 인터넷 사용이외의 다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6)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식사나 군것질을 하지 않게 합니다.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길게 할 뿐 만 아니라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 7) 자녀 스스로 인터넷 사용시간 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관리 소프트웨어 장치를 설치해 줍니다.
(‘자기주도학습도우미 램프’ 등 무료프로그램이 많음)
- 8) 자녀의 인터넷 사용으로 생활부적응이나 갈등이 지속되면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 9) 유해사이트 주소를 자동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 10) 바른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1)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확인하기

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나)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설치: 우리동네 및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나)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 권고

다)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라)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마)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바)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사)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조건]

가) 관련서류제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자는 사전(학년 초 1회)에 전문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미세먼지와의 질환과의 관련성 명시)를 학교에 제출

나) 고농도 미세먼지 시: 등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 대기정보(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다) 사전연락: 학부모가 학교에 담임교사에게 사전(1교시 수업시작 전)에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에 해당

나. 감염병 예방 교육

1)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됩니다. 이들 질병은 다른 학생에게 전염이 되므로 반드시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학부모님께선 접종을 완료해 주시고 만약 자녀가 전염병에 걸리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등교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 대상자: 법정감염병 환자, 법정 감염병 의심자,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2) 등교중지 방법

-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고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다)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 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1부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서류 상 병명 및 기간과 등교중지기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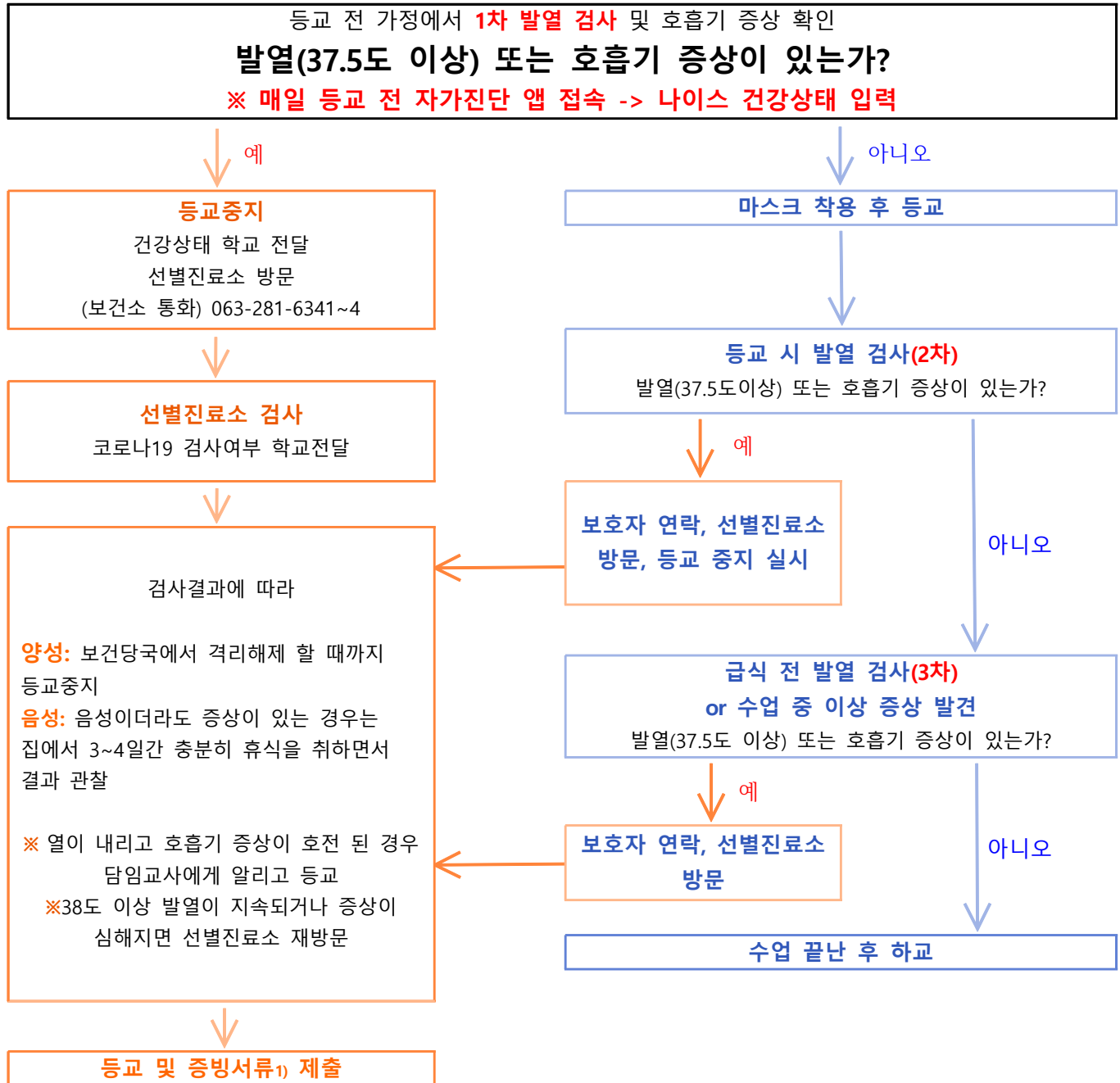
- 의심 학생은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등교 중지 및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 완치되어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등교중지합니다.
- (감염병 등교중지 기간보다 미리 등교 시에는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함)
- 등교 시 학생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학교로 제출
- 소견서 내 치료기간 동안은 학교에 나오면 안 되며, 학원도 가지 않도록 함

4) 학교에서 자주 발생 하는 감염병

병 명	병원체	감염경로	전염 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참고)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두분비물, 객담 → 비말감염	해열 후 2일 경과까지
수 두	수두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앉을 때까지(약 7일)
유행성 이하선염	메르스바이러스	타액 → 비말감염	증상발현 후 5일까지 (이하선종창 소실일 까지)
풍 진	풍진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발진 소실일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눈곱, 분변 → 접촉감염	주요 증상 소실 후 2일 경과까지
성홍열	A군B군용혈성 연쇄상구균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치료 시작하고 24시간까지
홍 역	홍역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해열 후 3일 경과까지)

다. 학교 내 확산 차단을 위한 가정과 학교대응 흐름도

단계	장소	내용	조치
1차	가정에서	가정에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자가진단시스템)	- 발열검사 결과 37.5℃ 이상이면, 안정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로 재측정 - 37.5℃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이상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
2차	등교 시	학교 출입구(현관)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후 건물 내 입실(열화상)	
3차	급식 전	발열검사 후 급식실 이동 또는 교실 배식	
수시	일과시간 중	열감, 건강상태 이상 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1)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보건당국의 한시적 조치로, 격리통보서,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입원치료통지서, 출입국증명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보호자 확인서 등 진료나 처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증빙

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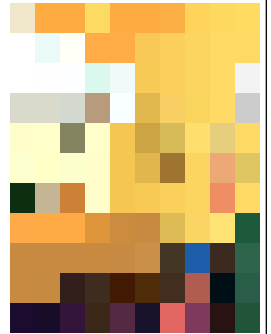
장애인 차별 금지법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 진정 접수 국번없이 1331)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 금지(제 20, 21조)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문화·예술·체육 활동(제24, 25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해야한다.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제 18조)

장애인이나 보조금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 금지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시설 제공해야한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금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 하에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한다.



지적 장애인(제37조)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권

교육권-차별 사례

- ▶ “교육청 연구학교 전교실 공개수업을 할 때 자폐성장애 학생은 통학학급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하게 해요.”
- ▶ “현장학습, 소풍, 수학여행, 체육대회 등에서 안전을 이유로 배제시키거나, 일반학교에서 함께 수학 여행을 간 경우에는 특수학급만 따로 활동하게 해요.”
- ▶ “통합학급 수업시간에 떠들어서 특수학급에 가 있으라고 해요.”
- ▶ “일반학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장애학생에게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따로 배치해서 시험을 치르게 해요.”

<여기서 잠깐!>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받는다는 인식은 다수가 소수의 약자에게 휘두르는 폭력과도 같습니다. 장애학생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학교장, 교사,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수업내용과 당연한 수업 참여권을 위해 교사와 학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 차별에 해당되며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관 련 법 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18조, 제20조, 제25조, 제 3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다. 권리구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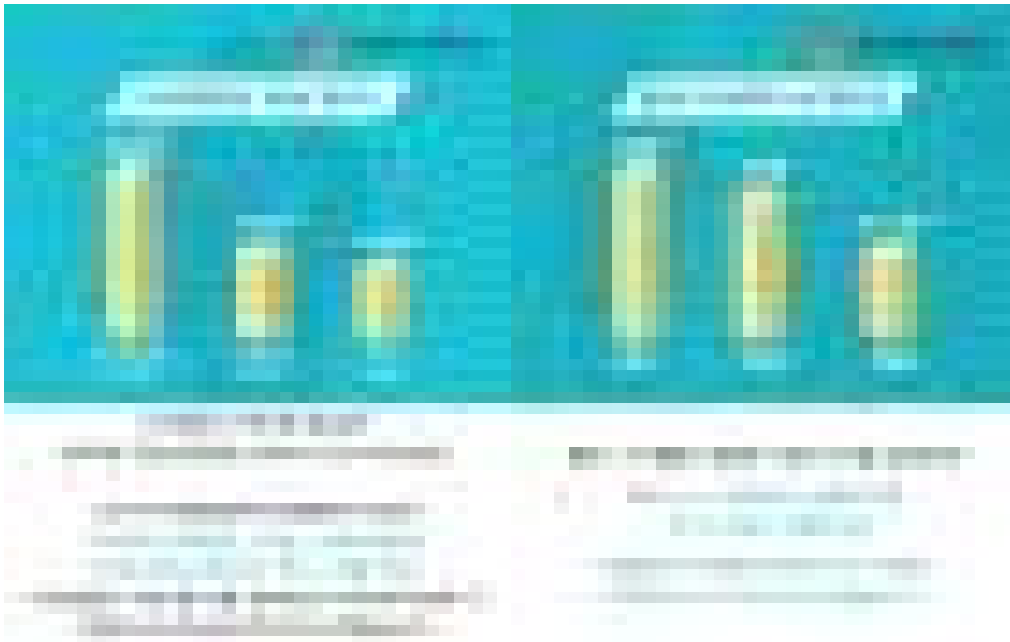
1) 권리구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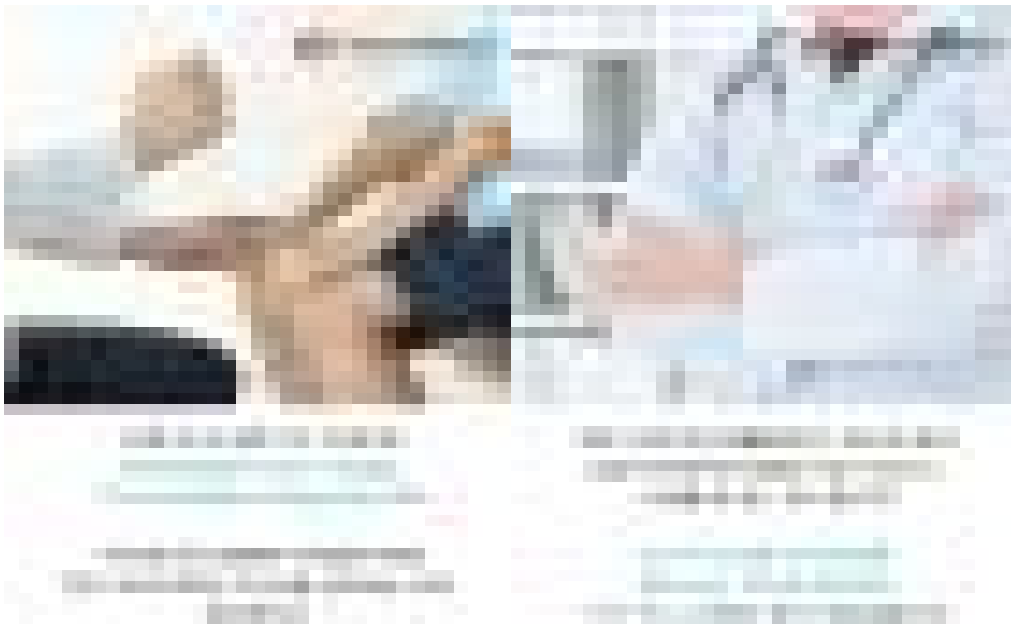
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2) 권리구제의 절차



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자살의 위험이 특히 증가합니다.





나.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입니다.

- 1) 식사와 수면 습관이 변합니다. 식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 2)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 3)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4)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 5) 일기장이나 SNS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6) 지각이나 등교 거부를 합니다.
- 7) 사람들과 만나기를 거부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 8)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 9) 사후 세계를 동경하거나 자살한 사람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 10)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11) 갑자기 물건을 많이 사거나 평소 하지 않던 쾌락적인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 12)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13)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
- 14) 방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위와 같은 신호를 보일 때 일시적인 스트레스 신호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심각한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다. 자녀가 위와 같은 위험 징후를 보일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1) 관찰되는 모습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고 이유를 물어봅니다.

2) 죽음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3) 자녀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듣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4) 집안의 위험한 물건(칼, 약물 등)을 없애거나 감춰주세요.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5)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미리 판단하지 않고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6) 표현을 한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7)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